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6 | 12

[illegible]

인천광역시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열두 번째, 인천 선교 역사

**12**  
**DECEMBER**  
**2016**



# 인천에 가자

노래 국이, 문보라 작사·작곡 신일수



너 하나만을 사랑했기에 나는 지금 인천에 간다  
인천에는 순이가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  
갈매기 나는 월미도에서 사랑을 배웠다  
끝없이 펼쳐진 인천대교를 건너  
그리운 순이 찾으러 넘실대는 바다 건너서

송도에서 팔미도 끝까지 내 사랑을 불러요  
외로운 바다 갈매기 소리 순이야 그림다  
월미도 휘감는 인천대교를 건너  
내 사랑 순이 찾으러 넘실대는 바다 건너서

2009년 <I Love Incheon> 앨범에 실린 트로트풍의 경쾌한 노래. 후렴구의 ‘인천에 가자, 인천에 가자, 보고 싶구나 순이야’는 한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 작사가인 신일수 선생은 가사 속 순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인천에 가면 정겨운 순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특히 이 노래는 2016년부터 인천의 노래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대중가요 200여곡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열린 ‘인천의 노래 선정 애인콘서트’에서 시민애창곡으로 선정됐다.

※‘인천 가치 재창조’는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인천의 노래’를 연재합니다.

인천에 가자 인천에 가자  
보고 싶구나 순이야  
너 하나만을 사랑했기에  
나는 지금 인천에 간다

# CONTENTS

•

2016 DECEMBER | VOL.276  
INCHEON MONTHLY MAGAZINE



10



22



28

06	굴 품은 바다 ① 굴 캐는 사람들
10	② 굴 요리 3선
14	③ 수복호 사람들
16	비전 인천 2016년 시정 성과
20	인천 주권 시대 ③ 민생 주권
22	우리는 인천 인천서부소방서
28	뜨거운 겨울 한증막
34	박물관이야기 마을박물관

36	12월의 문화 행사
38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⑫ 영화관광경영고 편
44	NEWS BRIEF
48	COUNCIL NEWS
50	300만 인천 시대 독자사진 이벤트
52	INFO BOX
56	2016년 과월호 목차
58	모닝 커피 한잔 이영미 가정폭력상담소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e-book,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  
이겠습니다.

... **주안역에서 백령도로 가는 교통편을 알고 싶습니다.**  
주안역에서 간선버스 24번(동인천역)을 타고 인천항 연  
안여객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후, 연안여객터미널  
에서 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인천시청 종합민원실(440-8350)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  
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연수구 인근에 어린아이가 갈만한 박물관이나 공원  
이 있을까요?**  
연수구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440-6750), 남동구에 있  
는 인천대공원(466-7282)과 소래습지생태공원(435-  
7076)가 있습니다.

...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2016년에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  
니다. 단 2017년 상반기 2~3월 중에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시/공고 '2017년 특정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공고가 나면 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대상자 확인은 한국자동  
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한번 인천인은, 죽을 때까지 인천인

장진식 독자님은 인천이 고향입니다. 동구 화수동에서 태어나 학창시  
절을 보내고 결혼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  
은 늘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올 2월에는 서울에서 하던 가게를 접  
고 계양구에 골프웨어 대리점을 냈습니다. "고향에 다시 오니, 아는 사  
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자주 만 날 수 있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독자님은 인천으로 온 후로 친구들과 함께 모교를 비롯해 화수부두,  
수도국산, 자유공원 등 옛 추억의 공간을 자주 밟곤 합니다. 그럴 때면  
시간을 거슬러 옛 생각에 잠깁니다. "동구 쪽은 옛 모습 그대로 변화  
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감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만 발전  
이 더딘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독자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  
에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  
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유공원을 놀이터 삼아 놀던 추억을 후세에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굿모닝인천>을 본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 발행하  
는 소식지는 시정에 대한 내용이 많고 너무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런데 <굿모닝인천>은 학교의 옛 앨범을 들여다보는 등 역사,  
문화, 관광, 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  
겨 있어서 좋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살던 고향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인천인  
은 죽을 때까지 인천인이라는 마  
음으로, 인천의 발전을 응원합니  
다." 뽕속까지 인천사람인 장진식  
독자님의 응원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힘이 절로 납니다.



독자 장진식(55·계양구 작전동)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 320

숫자로 보는 인천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잘 찍혀야 한다는 부담감에 표정이 늘 어  
색했다. 어릴 적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준다고 아버지는 가족  
끼리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늘 둔탁하고 무거운 카메라를 잊지 않  
고 챙기셨다. 아버지가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사진을 찾아오는  
날은 온 가족이 모여앉아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에이~ 이럴 땐 이렇게 찍을 걸, 초점이 조금 나갔네.' 아쉬움 속에  
서도 현상에 온 사진은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조리 앨범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사진은 귀하고 소중했다.  
연제부턴가 동네 사진관과 현상소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요즘엔 디  
지탈 카메라로 쉽게 찍고 쉽게 지운다. 디지털 세상이 낳은 최대의  
피해자는 동네 사진관이다. 굳이 복잡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손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장롱이 아닌 인터넷에서 사진 앨범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진관을 찾는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  
었다. 오직 사진관에서만 찍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증명사진조  
차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배송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모든 사람들  
이 사진사가 되어버린 요즘, 사람들에게 사진관은 더 이상 매력적  
인 공간이 아니다.

현재 인천의 사진관 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의 사업체조사에 따  
르면 2014년말 현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으로 등록  
된 개인사업체가 320곳으로 나타났다.

부의 상징이었던 카메라는 이제 1인 1카메라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별한 날에만 촬영하던 사진은 소소한 일상을 담은 도구로 활용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이지만, 가끔은 흑백사진  
처럼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했던 사진관의 추억이 그림다.



## 석화(石花)처럼, 거칠고 단단한 어머니의 세월

바다는 주인이 따로 없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바다가 공짜로 내어준 석화(石花) 밭에서 차디찬 바람 맞고 갯벌에 뒤엉켜 억척스럽게 삶을 일궈냈다. 6·25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에 터를 잡았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허리가 굽도록 갯벌에서 ‘쫄새’를 두드리고 굴막에서 칼질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그리고 오늘도 밤새도록 단단한 석화 껍데기 속에서 뽀얗게 영근 삶의 희망을 캔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만석동 팽이부리마을 '굴막 공동 작업장'



### 북쪽 땅 떠나, 남쪽 바다로

이른 아침,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의 '굴막 공동 작업장'. 해마다 굴 철이면 이 동네 아낙들의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다.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해 오전 10시까지 꼬박 굴을 깎다. 어제 바다에 폭풍 주의보가 내린 탓에 물건이 없어 그나마 작업이 일찍 끝났다.

“올해는 굴이 안 좋아요. 뽀얀 우유 빛깔이어야 하는데 멀겁잖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굴을 까던 아주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비도 오고 태풍도 불어야 굴이 잘 여무는데, 올해는 날이 가물어 알갱이가 도통 실하지가 않다. 인천에는 영종·용유도와 무의도 일대에서 굴이 많이 난다. 따로 씨조개를 뿌리지 않아도 용케 갯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자란다.



공동 작업장이 생기기 전, 주민들은 골목 길바닥에 비닐 천막을 치고 굴을 깎다.

“한입 잡썬봐.” 작업장에서 대장으로 통한다는 어르신이 칼로 굴을 척 베어 입안에 넣어 준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훅 끼친다. “덜 영글어서 짜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 들어가면 좋아. 양식 굴 먹고 탈 난 사람은 봤어도, 인천 굴 먹고 탈 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올해 바다농사는 영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자연이 키워낸 인천 굴만 한 게 어디 있으랴.

### 만석 부둣가에서 만석고가 밑으로

굴막 공동 작업장이 생기기 전, 주민들은 차디찬 골목 길바닥에 비닐 천막을 치고 굴을 깎다. 만석 부둣가 굴막에서 작업하기도 했다. “만석부두 조선소 담벼락 앞에 굴까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어요. 갯벌이나 섬에서 굴을 캐 와 그 안에서 바로 껍데기를 까서 내다 팔았어요.” 변육자 씨가 옛 기억을 더듬는다. 만





김선비 할머니는 50여 년 손이 부르토도록 굴을 쏘아내며, 딸 넷 아들 하나 훌륭히 키워냈다.



만석 고가 밑, 만석동 굴 직판장



배가 들어와도 끝이 아니다.  
80킬로그램이 넘는 굴 포대를 내려  
차에 싣는 작업이 두 시간 쯤 이어졌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박순애 할머니가 따온 굴을 손질하면, 딸이 화수 시장에 내다 판다.



석 부둣가 굴막은 30여 년 전에 하나둘 만들어졌다. 거적매기라도 하나 깔고 판자를 대어 지어 놓으니, 굴을 깔 때 추위가 한결 덜했다. 한창때는 40여 집의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공장 담벼락에 가까스로 기대어 있던 굴막들은 지금 스러지고 없다.

이제, 굴 까는 풍경은 만석동 고가 밑에서 볼 수 있다. 이 일대에는 알루미늄 새시로 번듯하게 지어놓은 굴막 20여 곳이 줄지어 있다. ‘만석동 굴 직판장’이라고 쓴 안내판도 버젓이 있다. ‘2번 굴막’에서 장사하는 김선비(76) 할머니는 아홉 살에 황해도에서 피란 내려와 열다섯 살에 인천으로 옮겨왔다. “고생 많이 했어요. 굴 깎지 50여 년 됐는데, 이것 말고도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시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전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굴을 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탄도 때고 얼마나 좋아.” 50여 년 손이 부르토도록 굴을 만지며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 덕

에 딸 넷 아들 하나 훌륭히 키워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다. 할머니가 투박한 손길로 칼질을 할 때마다 싱그럽고 탐스러운 굴이 맨살을 드러내며 바구니에 척척 담긴다. “신포동에서 갈비집을 하는 딸네 갖다 줄 거야.” 할머니의 깊게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오십 년, 굴을 캐고 까고 팔던 삶**

오늘은 오후 네 시쯤 굴을 싣는 배가 들어온다고 했다. 쌍용기초 소재 공장의 긴 담장을 따라 땅 끝자락에 있는 만석부두로 향했다. 저 멀리 작은 배가 뱃고동을 울리며 물으로 달려오고 있다. 오늘 아침 일곱 시에 무의도로 떠났던 ‘88한일호’가 아홉 시간 만에 만석부두에 닿을 내렸다.

배에 탄 사람들은 종일 석화 밭에 쪼그리고 앉아 시린 갯바람 맞으며 굴을 따 모았다. 이제 힘겹게 모은 굴을 배에서 내려야 한다.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대부분 60, 70대 노인인 이들에게 한 포대에 80킬로그램이 넘는 굴 포대를 내리는 일은 힘에 부친다. 두 시간째 배에서 굴을 내려 차에 싣는 작업이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굴 까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굴 까서 팔 것 생각하니 벌써 힘들어.” 박순애(72) 할머니가 따온 굴을 손질하면 딸이 화수 시장에 내다 판다. 아무래도 장사치에게 굴을 넘기는 것보다 온 가족이 나서야 이문이 남는다. 할머니 역시 전쟁을 피해 황해도에서 멀리 이곳 만석동까지 왔다. 이후 줄곧 바다 곁을 떠난 적이 없으니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차디찬 갯바람 맞으며 진흙에 뒤엉켜 살아온 세월이었다.

한평생 서쪽 바다에 핀 석화(石花) 밭에서 억척스럽게 삶을 일궈 온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단단한 석화 껍데기 속에서 뽐양게 영근 삶의 희망을 캔다. 만석동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건네준 말강한 굴의 감촉이 떠오른다. 짭조름한 바다 향이 아직도 입안에 맴돈다.



※ 갯이부리마을 ‘굴막 공동 작업장’과 만석동 굴 직판장에 가면 귀한 자연산 인천 굴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킬로그램에 1만 5천 원 선. 철에 따라 다르다. **갯이부리마을 굴막 공동 작업장** 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28호 **만석동 굴 직판장** 남포 상회 북성동 1가 1번지 28호, 772-8070



## 자연산이라 달다 ‘인천 굴’

인천 바다에서 나는 굴은 귀하다. 햇살, 바람, 파도가 키워낸 자연산은 사람 손에서 자란 양식 굴에 비할 것이 못 된다. 예부터 인천 굴 하면, 보지도 않고 사 간다고 했다. 덩치는 작아도 살이 탱탱하고 바다 향이 물씬 배어 있다. 날이 성큼 추워지는 12월이면 그 풍미가 절정에 이른다. 그 귀한 인천 굴로 맛을 낸 한국식, 중국식, 서양식 요리를 소개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푸드스타일링 진희원 요리연구가



인천 굴은 자연 그대로다. 굴의 유생이 갯바위에 붙어 절로 자란다. 반자연산으로 갯벌에 돌을 던져 놓거나 나무로 지주를 세워 놓아도 굴의 씨앗이 붙어 자란다. 갯벌에서 난 굴은 고된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들고 나니, 물이 들 때는 잠기고 물이 날 때는 공기 중에 몸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니 바닷물 담백 머금은 남해 굴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더디고 크기도 작다. 하지만 그 작고 단단한 몸뚱이에는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짙게 들어차 있다. 같은 인천 바다라도 지역에 따라 굴의 맛과 향이 다르다. 인천 굴은 영종·용유도와 무의도에서 주로 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맛이 짭하다. 연평도와 덕적도 굴은 특유의 향이 더 강하다.

## 한겨울 특식, 굴 솥밥

한겨울,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몸의 기운을 추스르자. 퐁퐁하고 차진 굴을 넣고 솥밥을 지으면 고슬고슬한 밥 사이로 바다 향이 고스란히 스며든다. 모락모락 하얀 김이 오르는 뜨끈한 굴 솥밥에 달래장을 쓱쓱 비벼 먹는 맛이란. 찬 기운을 몰아내고 마음속까지 따뜻한 온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 재료

불린 쌀 500g, 다시마 불린 물 2C, 국간장 1T, 청주 1T, 굴 300g(1마리 포 든 양), 생강채 1t, 깐 은행 10알, 당근 10g, 무 채 100g  
양념장 : 달래 30g, 진간장 2T, 다시마 국물(생수)2T, 청·홍고추 다짐 약간씩, 깨소금 1T, 들기름 1T, 레몬즙 1t



### 준비

- 1시간 정도 불린 쌀은 체에 발쳐 물기를 살짝 빼둔다.
- 2 다시마와 대파 뿌리로 우린 맑은 육수에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청주를 넣는다.
- 3 굴은 차고 깨끗한 물에 흔들어 씻어 이물질을 닦고 물기를 뺀다.
- 4 생강은 채 썰고 당근은 모양을 내어 자르거나 얇박하게 썬다.



### 만드는 법

- 1 냄비에 쌀과 만들어진 국물을 넣고 무채를 올려 센 불로 7분 정도 끓이다가, 불을 줄여 당근, 은행을 올리고 15분 정도 더 뜸을 들인다.
- 2 굴과 생강채를 넣고 3분 정도 더 뜸을 들인다.
- 3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 중식 소스를 곁들인, 석화 구이

중국에서는 굴을 익혀 먹는다. 통통한 굴 살을 발라 바삭바삭하게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지만, 굴이 껍데기에 붙은 채로 먹는 맛도 일품이다. 석화를 그대로 구워 중식 소스를 곁들이면 겨우내 무더진 입맛이 확 되살아난다.



### 재료

석화 500g(하프 셀 10개 정도), 빵가루 5T, 버터 30g, 파슬리 가루 약간, 다진 마늘 1T, 소금, 후추 약간  
소스 : 물 1C, 간장 2T, 설탕 4T, 식초 2T, 녹말물 약간, 오이 1/2개, 당근 1/4개, 양파 1/2개



### 준비

- 1 소스에 들어가는 오이, 당근, 양파를 한 입 크기보다 작게 썬다.
- 2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다.
- 3 석화를 흐르는 찬물에 씻어 이물질을 닦아낸다.



### 만드는 법

- 1 빵가루에 녹인 버터, 다진 마늘, 파슬리 가루, 소금 후추를 섞는다.
- 2 석화 위에 1)을 올린다.
- 3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분 정도 굽는다.
- 4 분량의 재료로 소스를 끓인다.
- 5 노릇노릇 구워진 석화 위에 소스를 곁들여 낸다.

### 굴 요리 TIP

굴은 우윳빛 광택이 나고 살이 통통하고 탄력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다. 굴은 사실 갓 쪄내 차가운 바닷물에 한 번 행궤 먹을 때 가장 맛있다. 요리할 때는 맹물에 씻으면 단맛이 빠져나가므로 차가운 소금물로 씻는다. 또 굴을 깔 때 나오는 굴 즙에 담가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굴 크림 스파게티

바다 향기 짙은 굴이 서양식 스파게티에 어울릴까? 물론이다. 진한 크림소스와 굴의 고급스러운 맛은 스파게티 면과 놀라울 정도로 궁합이 맞는다. 특히 굴의 탱글탱글한 육질이 고소한 크림소스 사이로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 재료

스파게티(1.9mm) 320g, 베이컨180g, 마늘 10알, 양파 100g  
소스 : 달걀 노른자 4알, 파마산 치즈 가루 4T, 생크림 1C, 소금, 후춧가루 각각 적당량  
화이트 와인 1/4C, 육수 2.5C, 버터 2T, 파마산 치즈, 후춧가루 적당량



### 준비

- 1 베이컨은 5mm 사각형으로 길게 썬다.
- 2 양파는 5mm 사각형으로 길게 썬다.
- 3 소스 재료는 섞어서 실온에 둔다.



### 만드는 법

- 1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베이컨, 마늘을 중불에 적당히 볶아 향을 낸다. 화이트 와인을 넣어 냄비 아래에 눌러붙은 것들을 긁어내고 육수를 부어준다.
- 2 끓기 시작하면 스파게티를 넣고 섞어주고 약불로 낮춘 뒤 뚜껑을 덮고 5분간 삶고 불을 끈 후 5분간 뉘둔다.
- 3 뚜껑을 열고 재료를 잘 섞어주고 소스 재료 섞은 것과 굴을 넣고 다시 한 번 섞어준다.
- 4 마무리로 파마산 치즈와 후추를 뿌린다.



요리연구가 진희원은 현재 Cook & Styling 실버 스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식사하셨어요?>, <따뜻한 냄비 하나>(출간 예정) 등이 있으며, 요리 잡지 <쿠켄>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수복호 사람들이 쓴 바다의 역사

‘수복호’는 50여 년간 인천 가까운 섬으로 굴을 따러 다니던 배다. 사진작가 김보섭은 이 배에 올라 뱃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어린 삶을 거친 흑백 사진 속에 담았다. 작가의 사진집 <수복호 사람들>을 통해, 바다에서 굴을 캐며 희망을 끌어올린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사진 김보섭 사진작가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수복호’는 50여 년 가난한 사람들을 싣고 굴을 따 왔다. 칠득이 오반장, 금자엄마, 섭섭이 할머니, 님순이 영배 엄마, 화수동 꼬부랑 할머니…. 대부분 이북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배 타고 섬에서 굴을 따고 또 밤새 굴을 까서 내다 팔며 어렵게 삶을 꾸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키울 수 있다면, 찬밥

에 물을 말아 허기를 채우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새우잠을 잔들 어떠리. 그렇게 어머니의 곱던 얼굴은 깊게 주름지고 섬섬옥수 같던 손은 두텁고 거칠어져 갔다.



“초창기에 묵세기(배에서 며칠씩 자면서 굴 따고 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 나갔는데, 하루 작업하고 나니까 그 담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심해. 그러면 일을 못하고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바람 불면 우리는 배속에서 굴러다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파도 때문에 하늘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때도 있지만 배에서 보면 하늘이 좋아. 하얀 구름이 뭉실뭉실 떠다니고, 저녁때면 조각달이 요렇게 떠 있고.



“어느 때는 이틀씩 작업을 못하고 바다에 떠 있었어. 배에서 3일씩 작업도 못하고 떠다니기만 하니까 선장이 집으로 간다고 거짓말하고 작업할 데로 가요. 파도가 너무 치니까 어찌어찌 바위들을 피해 배를 대고 작업하기도 했는데, 어느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어.

“

배를 타고 돌아올 때, 판유리 공장이 보이면 다 온 거지. 대우중공업 뒤 굴막에서 집식구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 굴 내리는 작업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리는 작업을 마치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또 굴 까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지.



“

지금은 굴막도 구청에서 만들어 주어 번듯하지만, 당시 부둣가 축대 위에 굴막을 처음 만든 건 나야. 축대 위에 비닐 막을 쳐 갖고 한 해 겨울 굴을 까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지각생’이 까고, 또 ‘섭섭이 할머니’가 까고 했어.



만석 부둣가 굴막은 30여 년 전에 굴 따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둘 만들어졌다. 무거운 굴 포대를 옮기느니 포구에 움막을 짓고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한창

때는 굴 까는 사람만 수백여 명에 이르고, 40여 집의 불이 밤늦도록 켜져 있었다. 하지만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가까스로 버티던 굴막들은 세월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바닷가엔 자식들 생각하며 밤새도록 칼질을 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한숨이 아직 남아 흐른다.



<수복호 사람들> 김보섭 | 눈빛 | 2008.04.

김보섭은 인천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작업하는 인천의 사진작가다. 특히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도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사진집 <수복호 사람들>을 출간했다. ‘수복호’는 우리 어머니들을 싣고 50여 년간 굴을 따러 다니던 배다. 사진집 안에는 ‘끈끈한 바닷바람과 소금기가 진하게 밴’ 흑백 사진 88장이 담겨 있다.



## 내일, 더 높이 비상

2016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뜻깊은 해다. 지난 10월 19일,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열었다. 특히 매립된 토지를 추가로 등록해 전국 최대 면적의 대도시가 된다. 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서고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간다. 심 없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더 밝게 빛날 내일을 준비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 주권 시대, 시민 중심 시대 ‘인천 주권 시대’ 열다



이제, 당당한 ‘인천 주권 시대’가 열린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30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힌다. 그 중심에는 300만 인천 시민이 있다. 시는 ‘민생’ ‘해양’ ‘문화’ ‘교통’ ‘환경’ 5대 분야의 인천 주권을 바로 세워, 300만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인천 주권 시대를 연다.

## 런던,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300만 인천 시대’ 개막

# 3,000,000

2016년 10월 19일,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인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연 지 37년, 200만 명을 넘어선 지 24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도시가 됐다. 특히, 인천은 매립된 토지를 추가로 등록하면서 전국 최대 면적의 대도시가 된다. 단순히 도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다. 300만 인천 시대가 오기까지 시는 시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시는 ‘인천 비전 2050’ 전략을 세우고, 민생·문화·교통·해양·환경 5대 분야에서 ‘인천 주권’의 실천 과제를 마련해 시민 행복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 인천 브랜드(BI) 선정

#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을 상징하는 새로운 인천의 브랜드(BI)가 선정됐다. ‘플라이 인천(Fly Incheon)’을 대신해 10년 만에 교체하는 인천의 새로운 BI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은 ‘all\_ways\_Incheon’이다. ‘all\_ways\_Incheon’은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주요 도시로서 하늘길과 바닷길 외에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세계의 길, 미래의 길 등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 정체성 및 핵심 키워드로 지정된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라는 의미의 ‘first ever’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동적인 인천의 정신을 나타낸다.

## ‘이것이 인천의 가치다’

### 인천 가치 재창조

인천은 거쳐 가는 통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다. 우리시는 300만 인천시민이 ‘우리는 인천’을 외치는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 가치 재창조’에 주력했다. 그 시작은 전국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의 실현이다. 오는 2021년이면, 인천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인천으로. 단 2시간대, 인천 중심의 교통시대가 열린다. 시는 이와 함께 최초, 최고(最古)의 역사와 문화, 168개 박물관,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원도심 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재창조해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든다.





## ‘빛 줄이고, 문제 풀고, 희망 열다’

### 민선 6기 2주년

2014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6기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빛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변화는 놀라웠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 인천시 총부채가 13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크게 감축됐다.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조8천5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인천발 KTX는 기본계획 용역비 70억 원이 반영돼 가시화되고 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식을 체결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권도 인천의 품으로 돌아온다. 또한 인천의 정체성을 찾아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드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본격화됐다.

## 서구에서 남동구까지, 빠르고 편하게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난 7월 30일 새벽 5시 30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열차가 첫 경적을 울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km 구간이 이어졌다. 정거장은 27개로, 이 가운데 16개 역이 서구에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됐다. 인천도시철도와 이어지는 환승역은 검암역, 주안역, 인천시청역 세 역으로, 검암역은 공항철도, 주안역은 경인전철, 인천시청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된다. 시는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

## ‘300만 인천, 우리 애인(愛仁)해요~’

### 제 1회 애인페스티벌 개최

‘300만 인천, 우리 애인(愛仁)해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축제가 열렸다. 인천(仁)을 사랑(愛)하고, 인천이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의 ‘애인(愛仁) 페스티벌’. 축제는 지난 9월 24일 막을 올려 10월 16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전후해 시 전역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를 한데 모은 이 축제는,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인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 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 인천시 재정 건전화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기본 조건은 경제다. 시는 무엇보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 왔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아닌 인천 발전을 이루는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고, 보통교부세는 이전 대비 두 배 수준인 4천억 원을 매년 확보했다. 그 결과 눈덩이 부채는 13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줄고, 시 본청 채무도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금도 내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인천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살기 좋아진다.

## 점점 더 가까워지는 서울, 경기도

### 수인선 완전 개통

수인선은 인천 남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1937년 일제강점기 협궤 열차로 개통해 인천과 경기도를 잇는 서민의 발 노릇을 해왔다. 1995년 운행을 멈춘 열차는, 2004년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오이도역에서 송도역을 잇는 13.1km를 우선 개통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송도역에서 인천역을 잇는 7.3km를 모두 연결했다. 수인선 인천 전 구간은 경인전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돼 서울로 가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오는 2017년 한대앞역에서 수원역까지 19.9km를 완공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한 번에 가는 길이 열린다.

## 대륙 사로잡은, 인천의 힘

### 중국 단체 관광객 6천 명 방문

인천으로 중국이 몰려들었다. 지난 3월 중국 화장품 유통 기업인 아오란그룹 임직원 6천 명이 인천을 찾았다. 이는 비행기로 한국을 찾은 단체 관광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6박 7일 일정 가운데 4박을 인천에서 머무르며 관광을 즐겼다. 방문단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송도 석산을 시작으로 인천대학교, 모래내 전통시장,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을 둘러봤다. 특히 4천500명이 월미도에서 벌인 ‘차맥(치킨+맥주) 파티’는 캔맥주 4천500통과 치킨 3천 마리라는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 공감하고, 함께 행복한 도시

300만 인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천의 주인이다. 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형 공감 복지’ 시대를 연다. 시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인천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인천형 공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8개 신규·확대 사업에 637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 수혜자는 12만5천 명에서 25만9천 명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 틈새 없는 인천 복지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내년도 인천시 전체 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1천547억 원이 늘어난 2조 3천756억 원으로 총예산의 28.6%에 이른다. 시는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편다. 이를 위해 위기가정 긴급 지원 기준을 크게 낮추고,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는 ‘SOS 복지 안전벨트’를 탄탄히 구축한다. 또 저소득층 중증 환자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다.

### 고용 복지 통합 일자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로 취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인천여성일자리 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연계해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대폭 확대해 ‘인생 4막’까지 행복한 삶을 약속한다.

조금 늦더라도 모두 함께 가는, 따뜻한 도시 인천. 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렇게 뜻 모아 찾아낸 ‘인천형 공감 복지’로 300만 시민 모두 행복한 내일을 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천시가 함께한다. 시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먼저 ‘I-Mom’ 지원 사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료와 만 3세~5세아 누리과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을 올해 316개소에서 2020년 635개소까지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 유일의 ‘장애인 자세 유지 기구 보급’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해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다.

###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다. 먼저 ‘인천 보듬 지킴이’ 사업으로, 지역 소외 계층의 문제를 150개 복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장애인과 가족, 이웃이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가족 공감 여행’을 확대한다.

### 건강 안심 복지도시



인천 어디서나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서해 5도 연평도,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사업’을 상설 추진한다. 정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편다.

#### ‘인천형 공감 복지’ 사업

2017년 복지 예산 637억원, 2016년도 대비 131억 원 ↑ 정책 수혜자도 12만 5천여 명에서 25만 9천여 명으로 ↑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 ▶인천형 복지사업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모두 도망쳐 나올 때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인천서부소방서 진압대원들

##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산다는 건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도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이번 호에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는 소방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인천서부소방서 김용수 홍보팀장. '홍보는 소방의 얼굴'이라고, 그는 말한다.



대한민국 소방관, 하루 평균 20분에 한 번, 50차례 이상 출동. 언제든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방화복.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안개 낀 세상 한가운데 희망

순식간이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차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지고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 서부소방서의 김용수(50) 소방위는 이 사건 현장의 구조대장이었다.

“그야말로 암흑세계였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시야에 들어온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대원들이 침착하고 빠르게 대응해서 서너 시간 만에 사건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소방위는 구조 경력 21년의 베테랑이다.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고 사람 구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

다고 다짐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는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불이 난 집을 보고 뛰어 들어가 자고 있던 임신부를 구해냈다. 주택가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만 보고도 소방관의 직감으로 화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인천시장으로부터 인명구조 유공 표창을 받았고, 소방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KBS 119상'의 영예도 안았다. 천직 소방관이었다.

오랫동안 구조 현장에서 활약한 김 소방위는 현재 서부소방서 홍보팀장을 맡고 있다. 평소에 권역을 둘러보며 소방안전을 살피고, 사건 때는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언론에 알리는 역할이다. “홍보는 소방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만큼 그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소방서 김준태 서장. 행정과 현장에 강한 기획 통으로, 대원들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선명히 새겨진 이름처럼, 소방 장비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다. 노후 된 생명줄을 교체하는 것, 영웅들이 갖는 소박한 바람이다.

### 출동벨 소리 끊이지 않는, 서부소방서

서구를 관할하는 인천서부소방서는 인천에서 가장 바쁜 소방서로 통한다. 서구는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며 강화도 다음으로 관할 지역이 넓다. 또 구도심과 노후한 공장지대가 있고, 루원시티 건설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만큼 사건 사고율이 높아 소방대원들 사이에선 기피 지역으로 여겨질 정도다.

김준태 서장은 지난 10월 1일 인천소방본부에서 인천서부소방서로 옮겨왔다. “부임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서구의 소방안전을 지킬지’ 잠을 못이룰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관할 범위가 넓고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 힘들지만, 사명감 넘치는 우리 대원들을 믿습니다. ‘안전도시 인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30여 년 경력의 김 서장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기획 통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3교대 근무를 먼저 시작하고, 인천 공항소방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 유명한

‘몸짱 소방관’도 그의 머릿속에서 시작됐다. 서부소방서를 진두지휘하는 지금은 ‘특수시책’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운행과 폐기물 관련 업체의 화재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구간 번호를 부착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행정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소방인의 소임을 다한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주민들 모두 육지로 피신해 나올 때 그는 대원들과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마치 ‘불가능한 작전’을 하듯 짙은 어둠 속에서 섬으로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소방인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날만큼 든 적이 없었다.

### 불길 속 위험보다 더 아픈 현실

서구는 폐기물 화재 예방과 대응을 소방안전 ‘특수시책’으로 정해 관리할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하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업체에서 난 화재만 해도 28건에 이르고, 올해만 두 건 모두 15시간과 19시간이나 걸려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대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사력을 다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다. 바로 불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불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대면할 때면 견디기 어려워요.” 화재 진압대원인 조성우(36) 소방장은 젊은 날, 시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읽고 운명처럼 소방관의 길에 들어섰다. 그날 뜨겁게 끓어오르던 감정은 지금도 변함 없지만,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하고 때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그를 힘들게 한다.

구제홍(37) 소방교의 아버지는 의용 소방대원이었



김성욱 구급대원과 김현우 구급대원. 그들에게 심장을 살리는 일은 크나큰 영광이고 명예다.





다. 어린 시절 치솟는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다. 영웅 같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인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길을 잡았는데, 소방관의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든지 해서 되레 질책을 받을 땐 허탈해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저 따뜻하게 손잡아 주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일 끝나고 따뜻한 컵라면이라도 받아들면 너무 보람돼요. 그러면 ‘내가 이 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길

소방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출동 벨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하지만 대부분 길가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배가 아프거나, 집에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119를 찾는다.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택시보다 빨라서 불렀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면 회의감에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수록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을 살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구급대원인 김현우(34) 소방사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119를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그렇게 뿌듯할 수 없다. 구급대원에게 심장을 살리는 일은 크나큰 영광이고 명예다. 구급대원 김성욱(31) 소방교는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게 했다. 양수가 터져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4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하던 중이었다. 순간, 신생아의 머리가 반짝하고 보였다. 놀랐지만 침착하게 구급 지도의사와 통화하면서 처치를 이어갔다. 이내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길이구나. 뿌듯하고 기뻐요. 아이 웃과 미역을 들고 동료들과 아이가 태어난 산후조리원에도 찾아갔지요. 훗날 백일 떡이라도 해서 찾아오



정서진 119 구조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뱃속까지 시린 한겨울에도 물속으로 뛰어든다.



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하하. 제가 직접 땃줄을 자른 아이인데,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김현우(34) 소방사도 멈춘 심장을 뛰게 한 적이 있다. “심정지 상태였는데, 그분을 제 손으로 살려냈어요.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늘 디스크와 무릎 관절의 통증을 달고 다닌다. 환자를 들것에 태워 옮기느라 얻은 직업병이다.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 감수할 수 있는 영광의 상처다.



한태수 구조대원과 이신우 구조대원. ‘위험 속에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본능과도 같다.



본능처럼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몸에 진 장비 무게 30킬로그램, 하루 평균 20분에 한 번, 50차례 이상 출동. 매년 평균 7명 순직, 300여 명 부상. 평균 수명 58.5세… 대한민국 소방관의 현실이다. 하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소방관의 바람은 단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 하지만 동료가 목숨을 잃기라도 하면, 열악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서진 119 구조대의 부대장 이재영(48) 소방위가 대원들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보다 ‘대원의 안전’이다. “출동에 만전을 기하라. 하지만 그전에 대원의 안전부터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라뱃길에 있는 정서진 119 구조대의 대원들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수난구조를 한다. 뱃속까지 시린 한겨울에도 투신자를 찾아 물속에서 며칠을 헤매곤

한다. 그들의 안전과 생명 역시 소중하다. 구조대원인 한태수(33) 소방교도 소방인의 삶이 녹록치는 않다고 말한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던 동료를 두 명이나 떠나보내야 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남을 도울 때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이신우(45) 소방장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현장에선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 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아이들을 보면, 고단했던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진다. ‘위험 속에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은 소방관에게 본능과도 같다. 고달프지만, 뜨거운 사명감으로 버티는 대한민국 소방관. 그들은 모두가 도망쳐 나올 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으로 오늘도 뛰어든다.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소방관의 기도’를 마음속에 되뇌며….



## “병원에 왜 가. 여기오면 다 낫는데...”

몸이 아프거나 찌뿌둥할 때 우리는 흔히 ‘찜질이나 하자’ 말한다. 후끈한 열기에 몸을 맡겨 흠뻑 땀을 빼고 나면 무거웠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속까지 개운해진다. 여기, 80년 동안 고집스럽게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한증막이 있다. 도시 한복판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지만,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존재조차 잘 알지 못했던 그곳, ‘송현한증막’을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배영화 사장은 어르신들이 황토방의 묵직한 문을 쉽게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긴 끈을 매달아 문을 열어준다. 일종의 자동문(?)인 셈이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 세월 가득 담은 ‘송현한증막’

송현 시장 근처의 ‘송현한증막’. 높이 내걸린 주변 간판들과 달리 나지막한 곳에 자리한 작고 낮은 간판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준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입구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큼 작았고, ‘여탕’이라고 적힌 작은 천이 간판 아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입구와 연결된 짧고 어두운 통로 끝의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조금 전 대로변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눈앞의 모든 풍경이 낯설다.

“한증하러 왔소?” 나이 지긋한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반긴다. 꽤 넓은 공간에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들이 몸을 감쌀만한 크기의 포대를 쓰고 삼삼오오 앉아 있다. 젊은 방문객의 등장에 호기심 가득한 눈길이 푹푹 찌를 듯 쏟아진다.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사물함에는 열쇠가 없다. 손님 대부분이 단골인 송현한증막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 열쇠가 없어도 지금껏 물건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사물함이 거추장스럽다고 다들 노란 플라스틱 상

자에 개인 소지품을 담아 놓는다. 그 모습이, 어릴 적 엄마를 따라가 봤던 공공목욕탕의 기억을 되살려준다.

### 전통방식 고집하는 80년 한증막

한증막이 궁금하다고 하자, 주인 할머니가 포대 하나를 건네준다. “뜨거워서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 만들어진 지 80년이 넘었다는 황토방은 지금도 전기가 아닌, 나무 뿔감으로 가마에 불을 올린다. 그리고 보니 둥그런 황토방 입구의 두꺼운 나무문은 그늘음으로 가뭇게 변해있었고, 한편에는 나무 장작이 커켜이 쌓여있었다.

“내가 여기서 한증막을 운영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어. 원래 식당 했는데, 한증막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한증막을 물려받았지. 오래됐지만 없앨 수가 없어. 이렇게 큰 막장(황토방)이 얼마나 좋은데 없애.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아. 우리 한증막이 없어지면 그분들 다 어디 가.” 배영화(70) 사장은 한증막에 대한 진한 애정을 내비쳤다. “매일 새벽 2시에 장작을 때기 시작해서 6시쯤 재랑 솥을 꺼내. 재랑 솥은 따로 통





에 담아서 그 열기로 먹을 물도 끓여. 한증막은 아침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 그 전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막장 안에 나무를 쌓아서 서너 시간 남짓 불을 지피면 막장의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는다. 그래서 아무리 열기를 잘 참는 사람이라도 가마에 들어갈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반드시 포대를 뒤집어써야 한다.

### 뜨거운 열기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커다란 가마니 두 개를 겹쳐 두르고 뜨거운 열기가 열굴에 닿지 않도록 고개를 꼭 숙이고 가마솔 같은 황토방으로 들어갔다. 흠~ 후끈한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든 지 80년이 넘었지만 황토방의 성능만큼은 최고다. 좁고 낮은 입구와 달리 황토방은 천장이 높고 널찍했다. 나무 향기가 가득 배어있는 황토방에 앉아 있으니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눈을 감고 온갖 상념을 내려놓는다.

“여기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이 안나. 몸은 편해지고, 마음은 안정되고… 오늘 어깨가 조금 아파서 왔는데, 두탕 하나까 벌써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어.”

한번 황토방에 들어와 찜질하고 나가는 걸 ‘한 탕’이라고 한다. 올해 85세가 되었다는 방정남 어르신은 30대부터 이곳을 이용했다. “요즘 찜질방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전기로 하는 거랑은 달라. 병 고치려면 나무 때는 한증막을 다녀야 돼. 아픈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고쳤지. 중풍에도 좋대.”

어르신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으나 뜨거운 열기를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서늘한 공기 속으로 나오니 그제야 살 것 같았다.

### “내가 살아있는 한증막 역사야”

열기와 땀을 식히며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송현한증막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다. “한증막? 이거 엄청 오래된 거지. 내가 올해 아흔두 살이야. 스물한 살 때 처음 이용했으니까 최소한 70년은 넘었잖아. 첫애 낳고 해산바람에 고생이 말이 아니었는데, 친정엄마가 한증시켜야 낫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녔어. 이거(한증막 시설) 우스워보여도 정말 좋은 거야. 허리를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했는데, 여기 다니면서 다 나았어. 혈액 순환이 잘돼. 옛날에 병원이 어디 있어? 여기 오면 병이 싹 나으니까

여태 다니는 거지. 첫애 낳고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잖아.” 92세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박순옥 어르신의 목소리는 정정하다.

“한증도 요령이 있어. 한 탕 하고 나면 누워서 폭신티에 여유를 가지면서 다시 들어가야지. 자꾸 들락거리면 쉽게 지치고 기운 빠져. 우린 아침에 와서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자면서 편안하게 쉬어. 다섯 탕 정도는 해야 몸에 좋아”

어르신의 충고대로 편하게 쉬면서 한증막 내부를 둘러보았다. 샤워시설도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목욕실은 샤워기가 없어 바가지로 물을 떠서 사용해야 했고, 목욕탕 한가운데는 온기를 책임지는, 낡았지만 커다란 난로가 놓여 있었다.

### 사라지면 아쉬울, 역사가 가득한 곳

찜질방, 숯가마가 있기 전에 한증막이 있었다. 한증막은 뜨거운 열기로 피부를 자극해 땀과 함께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체온보다 훨씬 높은 열기가 모세혈관을 확장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이 잘 이뤄지게 한다. 돌과 흙을 이용해 돔 형태로 만든 한증막

에서 나오는 원적외선도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한다.

예전 어머니들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한증막을 이용했다. 김장철이나 명절 후, 몸이 아플 때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듯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다. 오래전 송현한증막은 하루는 여자, 하루는 남자를 받는 시스템이었다. 전화가 없던 시절, 손님들이 헛걸음을 치지 않도록 기다란 대나무에 흰 천(여자), 검은 천(남자)을 매달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제 송현한증막 입구에는 오로지 ‘여탕’이라는 천만 걸려있다.

너무 오래돼서 함부로 손 댈 수 없을 것 같은 ‘송현한증막’.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낯선 곳이라, ‘여탕’이라는 천마저도 볼 날이 머지 않을 듯하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벌써 가득하다.

**Tip** | 송현한증막은 보통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마치는 시간은 손님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이 단골이라 알아서 그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토요일 저녁은 손님이 머무는 한 밤 새도록 운영한다. 이용료는 8천 원. 여탕만 운영하기 때문에 남성의 방문은 사절! ☎773-0952





강화에서도 즐기는 전통 한증막

강화도에도 ‘송현한증막’처럼 전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증막이 있다. 춥다고 실내에만 머물지 말고, 가족과 나들이를 겸해 강화를 방문한다면 한증막에 들러보자. 뜨끈한 열기로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만들 수 있다.

강산 불한증막

강산불한증막(옛 선원사 한증막)은 1999년 8월 1일 선원사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성원 스님이 포교를 목적으로 건립한 한국 전통 한증막이다. 2009년 ‘선원사한증막’에서 ‘선원한증막’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했다. 2015년에는 새 주인이 ‘강산불한증막’으로 다시 개명해 운영하고 있다. 매일 새벽마다 참나무를 때서 막의 온도를 높인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이용료는 8천 원.

강화군 선원면 선원사로 142번길 20 ☎933-8985

청솔 불한증막

17년 된 이곳에는 2개의 가마가 있다. 불을 막 빼 뜨거운 ‘꽃탕’과 ‘저온탕’으로 나누어진다. “한증막 안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노른자부터 익어요. 한증막은 몸속부터 덥혀 노폐물을 빼내는 구조라서 건강에 좋은 거죠. 한증하고 나서는 간단히 샤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증하고 나서 그냥 가기도 해요.” 이곳은 한증 위주이기 때문에, 목욕탕과는 달리 간단한 샤워시설만 설치되어 있다. 24시간 운영하며, 이용료는 8천 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46 ☎933-9977



고구리 한증막은(좌) 몇 해 전 보수공사를 했지만, 수정산 한증막(우)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증막, 교동도에 있다!

한증막에 대한 언급은 세종실록(세종 4년·1422년)에 처음 등장한다. 한증소는 세종 초부터 병 치료에 이용되었다. 동, 서 활인원에 각각 있었으며, 성 안에는 한증원이 따로 설치돼 운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기록으로 보아 한증은 600년 가까이 된 한국의 목욕 문화다.

강화군 교동도에 조선시대 한증막이 남아있다. 교동면 고구리 화개산, 난정저수지 근처 수정산, 봉소리 은압산, 상룡리 장다릿굴 등 네 군데에 한증막이 남아있으며, 그중 고구리와 수정산의 한증막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증막은 내부에 소나무 가지 등으로 불을 지피 열을 내고, 현 옷이나 가마니를 뒤집어쓰고 들어가 땀을 빼는 방식이다. 교동도 한증막들은 둘레 15~18m와 높이 2.5~3m, 입구 70cm×60cm로 규모가 비슷하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한증막을 이용하셨어. 자식

들이 부모를 위해 솔가지와 나무를 막 안에 넣고 불을 지피면서 노래를 불렀지. 한증막을 달구는 과정이 하나의 문화였어. 교동도의 한증막은 1970년대까지도 문을 열었어.” 교동향교 전교 방형길(72) 어르신 이 한증막에 대한 기억을 들려줬다. “한증막은 대부분 물 맑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지.” 교동도 한증막의 공통점은 시냇가에 위치해 있거나, 근처에 별도의 우물시설을 조성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진환 교수가 발간한 ‘교동도의 역사와 문화산책’에 따르면, 교동에는 4곳의 한증막 외에도 봉소리 숯고개, 읍내리 절넉굴, 서한리에서 한증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동도의 한증막 관련 유적지는 총 7곳이다. 이 교수는 교동도에서 여러 곳의 한증막 원형과 흔적이 발견된 만큼, 학술연구와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박물관, 주민의 삶을 오롯이 담다

한때 마을은 살아있는 교육장이고, 동네 어른들이 선생님이던 시절이 있었다. 뒷동산 사당에 얹힌 이야기며, 고개와 관련된 전설 등 어른신이 들려주던 옛날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을의 역사를 배웠고 마을을 알아갔다.

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2016년 현재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는 3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 수치로 따지자면 10만 명 당 1개의 박물관이 있는 셈인데, 타 도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인천의 박물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컬렉션과 전시물을 자랑하고 있다. 고고, 미술, 역사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박물관에서 과학, 종교, 생활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박물관이 시민과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쯤 되면 인천을 '박물관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립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다. 기존 박물관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주민의 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박물관'이 그것이다. 마을 박물관은 말 그대로 동네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이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원, 스페이스빔, 남구청과 함께 추진해 온 시립박물관은 지난해 남구 용현 2동과 5동에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을 개관했고, 올해는 도화2·3동에 '쑥골 마을박물관'을 열었다.

마을박물관을 운영하는 이는 시립박물관 소속 학예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다. 동네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에 역사나 고고학, 미술사를 전공한 학예사가 필요치 않다. 오히려 그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주민이 전문 학예사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마을 박물관을 개관하기 전, 박물관을 기획하고 운영할 마을 큐레이터를 모집했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사, 전시기획 실습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마친 마을 큐레이터

가 직접 박물관 개관작업과 특별전시에 투입됐고, 지금껏 박물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토지금고와 쑥골 마을박물관에는 각각 11명과 14명의 주민이 마을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박물관은 커다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그마한 공간만으로도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은 컨테이너 2동에 조성됐으며, 쑥골 마을 박물관은 비어있는 주택을 박물관으로 꾸며놓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전시를 비롯해 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 교육 역시 마을 큐레이터 손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의 어른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통시대의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 중 7개 지자체에서 구립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립하고 있다. 지난 9월 구립 박물관이 없는 남구청과 시립 박물관 사이에 마을 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동 단위의 마을 박물관을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지금은 두 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남구 곳곳에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립 박물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시립 박물관에서는 인천의 가치 중 하나인 도서 지역에도 마을 박물관의 개념을 도입해 '섬 박물관'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마을 박물관, 섬 박물관이 마땅히 마을의 이야기와 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진정한 생활사 박물관이 아닐까?

### 쑥골 마을박물관

지난 10월 25일 제2호 마을 박물관 '쑥골 마을 박물관'이 석정로 212번길 11-46(도화동)에 문을 열었다.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7년 동안 비어있던 집으로, 개보수 과정을 거쳐 마을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으로 거듭났다. 벚가 많은 동네라는 의미를 갖던 '쑥골'이 음운변화를 일으켜 쑥골로 불리게 된 도화2·3동은 북망산, 선인재단, 염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는 공간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한데 모아 마을 큐레이터와 함께 기획한 '쑥골이야기'가 상설로 전시될 예정이고, 마을 학생들이 자기 동네를 직접 그린 작품들로 꾸민 특별전 '우리 눈에 비친 쑥골'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전시된다.

운영시간 오후 1~5시(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휴관)  
문의 440-6749



쑥골 마을박물관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12  
December



**02** 금  
분홍립스틱 ‘강애리자의 향수’  
북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8시  
2만 5천 원(예약 2만 원)  
☎ 834-1055, 010-9155-1055

**03** 토  
20주년 ‘ILLUSIONIST 이은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4일은 오후 2시, 6시 30분)  
R석 7만 원, S석 6만 원  
☎ 1566-6551

**08** 목  
2016년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10일은 오후 3시, 7시, 11일은 오후 3시)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시야 장애석 2만 원  
☎ 500-2000

**09** 금  
인천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하아얀 소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10일 오후 5시)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10** 토  
슈퍼 스테이지 더 뮤지컬 스타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 580-1135

**11** 일  
2016 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Picture me’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VIP석 8만 8천 원,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44-3901

합창으로 듣는 꿈의 선율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4~5시  
무료  
☎ 760-3516

**13** 화  
인천플루트콰이어 제16회 정기연주회  
‘플루트와 함께하는 캐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1만 원  
☎ 888-0808

**15** 목  
인천시립합창단 153회 정기연주회  
‘금관양상블과 함께하는 캐롤 잔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1588-2341

동물원 콘서트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실  
오후 7시  
무료  
☎ 899-1517

**17** 토  
송년음악회 ‘가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4시  
무료  
☎ 760-3538

양방언 EVOLUTION 2016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VIP 7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시야 장애석 2만 원  
☎ 500-2000

나윤선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1588-2341

**21** 수  
커피콘서트12  
재즈파크빅밴드 with 웅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전석 1만 5천 원),  
7시 30분(R석 2만 원, S석 1만 원)  
☎ 1588-2341

**22** 목  
조화현의 똑똑!똑똑! 북&토크 콘서트  
인천일보 김진국 기자  
북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8시  
2만 원(예약 1만 5천 원)  
☎ 834-1055, 010-9155-1055

**23**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9회 정기연주회  
‘윈터 스노우 시즌 - 환희의 송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판타지 발레 전막 ‘호두까기 인형’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전석 2만 원  
☎ 580-1135

남경윤 Quartet과 함께하는 콘서트하우스 현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북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8시  
2만 원(예약 1만 5천 원)  
☎ 834-1055, 010-9155-1055

**24** 토  
뮤지컬 갈라쇼 ‘윤현석과 친구들’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소래극장)  
오후 3시, 7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5천 원  
☎ 460-0560

윤복희 65주년 기념콘서트-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9만 9천 원,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 1566-6551

**25** 일  
작사가 윤종신 콘서트  
Part.2 특강 인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 원, R석 9만 9천 원, S석 8만 8천 원  
☎ 1566-6551

i진+콘하현 X-mas기획공연  
기타리스트2km박경호  
‘크리스마스 콘서트’  
북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5시  
2만 원(예약 1만 5천 원)  
☎ 834-1055, 010-9155-1055

**28** 수  
경인방송 개국 19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830-1000

음악으로 여는 아침, 모닝 콘서트  
‘최소리의 토크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만 원  
☎ 580-1166

월드뮤직 ‘SE:UM’ 의  
‘KOREAN BREATH’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소래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460-0560

**29** 목  
2016 김동규 송년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5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5만 원  
☎ 888-9911

**30**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2016 제야음악회 ‘애국(愛國)’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 이달의 展 |

인천 미술은행전 ‘미술, 인천을 말한다; 인천, 미술을 보다’  
11월 22일~12월 24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인천문화예술교육 발언전  
11월 30일~12월 11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제17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12월 2~8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소 전시실

미르서각회, 서각 르네상스  
12월 2~13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연필스케치 동아리 회원전  
12월 2~13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한 시간에 보는 세계미술사 展 “동양의 눈, 서양의 눈”  
11월 12일~12월 7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Special B  
12월 8~18일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2016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술작품전  
12월 9~15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5회 인천 수채화 아카데미전  
12월 9~15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현대 조형예술협회 회원전  
12월 9~15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부평 역사소핑물 사진 동우회 한마음 회원전  
12월 9~15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인천사생협회 제48회 정기전  
12월 16~22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한국전통자수,침선 기획전  
12월 16~22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삶의 사색전  
12월 16~22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4회 드림 포커스 클럽 정기전  
12월 16~22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강효진 민화연구소, 민화 그리고 어울림전  
12월 16~27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무오(無鳥) 서권수 개인전  
12월 16~27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2016년 저어새 사진 전시회 ‘저어새, 인천시민 마을에 담다’  
12월 23~2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3회 윤나위 회원전 ‘자연 그리고 사람들’  
12월 23~2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16 제24회 인천가톨릭미술가회정기전 ‘자비’  
12월 23~2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 그리스도 향기 풍기는 ‘에즈버리 동산’의 백향목

졸업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 기념사진 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 잡은 포즈나 학교 밖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이다. 지역 내 고교 앨범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통해 인천의 6, 70년대를 반추해 본다. 그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 최초의 서구식 초등 ‘영화학당’에서 출발

현재 인천 동구 창영동에 위치한 영화관광경영영고의 역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 기관인 ‘영화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학당은 1892년 8월에 내리교회 안에 설립되었다. 이화학당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던 마거릿 벤젤이 인천에 정착하여 여자 어린이 교육을 시작한 것이 영화학당의 시작이다. 처음엔 학교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당시 인천에서는 서양인들이 어린이 간을 약에 쓴다는 소문이 나돌아 1895년에야 겨우 학생이 2명 늘 정도였다. 당시 학생들은 가난해서 학용품은 물론 용돈까지 학교 측이 제공했다. 한문, 국문, 성경, 지리, 영어를 가르쳤다. 1909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정식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이듬해 짜리짜에 있던 학교를 현 위치에 2층 벽돌집 교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영화학당보다 먼저 설립된 서울의 배재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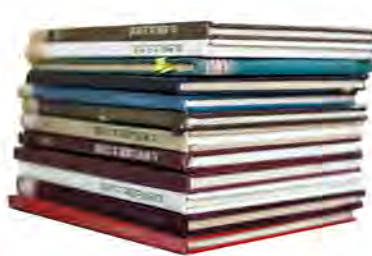
등이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영화학당은 초등교육에 힘을 써 왔다. 최초의 여성 박사 김활란, 유아 교육 개척자 서은숙 등 한국 사회의 선구자들 중 다수가 영화학당 출신이다. 또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도 이 학교 출신이다.

### 카지노 교육 과정 도입

영화(永化)는 기독교 이념의 ‘영생’과 ‘교화’를 뜻한다. 1966년 11월 17일 영화여자실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후 ‘영화’의 이름은 변함없지만, 뒤에 붙은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다. 영화여자실업고(1966), 영화여자상업고(1991), 영화여자정보고(2001), 그리고 2013년 영화관광경영영고의 이름표를 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화의 교명은 어찌 보면 사회 추세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을 우선

### 각 학교 개재 월호

1월호 인천여상	7월호 인천해양과학고
2월호 동산고	8월호 재능고
3월호 인성여고	9월호 박문여고
4월호 인천기계공고	10월호 송도고
5월호 중앙여상	11월호 동인천고
6월호 인천대건고	



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업과, 사무자동화과, 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사이버정보과, 관광경영과, e마케팅과, 미디어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서비스과, 외식조리과… 개교 이후 그동안 개설된 학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변천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영화관광경영영고는 다시 한 번 변신을 꿈꾼다. 관광특성화고에 걸맞게 인천지역 최초로 2017년부터 카지노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관광경영과 3학년 교육과정에 카지노반(2개)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종도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전문 관광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화관광경영고는 2016년 2월 현재 47회 졸업식을 거행하며 1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약국이 있는 변화가 (70년도 앨범)**

배다리철교에서부터 인천세무서까지 거리는 6, 70년대 꽤나 번잡한 골목통이었다. 헌책방, 아이스깨끼집, 문방구, 분식집, 기념품 제작업체, 양복점 등 갖가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영화학교 정문 앞에 기와집 영화약국의 모습이 보인다. 간판에 '2국' 전화가 표시돼 있다.

**뉴서울호텔 교환실 실습**

**(70년도 앨범)**

예전에는 교환원을 거쳐야만 호텔 내 프런트나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호텔의 교환원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했다. 관광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중요한 실습 중 하나였다.



**자유공원 '인증 샷' (71년도 앨범)**

바다와 항구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유공원은 한때 인기 있는 관광지였다. 주말이면 웨딩마치를 막 끝낸 신혼부부를 태운 오색테이프르 치장한 '대절 택시'들이 공원 언덕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단체 관광을 왔는지 학생들 뒤로 마이크로 관광버스 한 대가 서있다.



**수업 대신 규탄 대회 (71년도, 76년도 앨범)**

'신고하고 애국하고 자수하여 행복 찾자' '살인마 김일성이 적화음모 그만두라' 가장 만만한 게 학생들이었다. 각종 규탄대회에 학생들이 자주 동원되었다. 물론 학생들은 수업을 빼먹을 수 있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격세지감' 계몽 행렬 (73년도 앨범)**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교기념 축제 가장 행렬 장면. 지금의 정책 당국자들이 보게 되면 팔짝 뛸 '어이없는' 계몽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위한 '산아제한', 쌀 소비를 줄일 '혼식 장려' 등.

**설탕공장 견학 (77년도 앨범)**

1970년 수인역 부근 신흥동 8만㎡ 부지에 제일제당 공장이 준공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사탕수수 원료를 수입해 '백설탕' 설탕을 생산했다.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대기업'이었던 제일제당으로 학생들이 현장 실습(견학)을 다녀왔다.



**용감한 처녀 뱃사공 (78년도 앨범)**

2011년 문을 닫은 송도유원지는 국내 최대 인공 해수욕장이었다. 해수욕장 옆으로 커다란 호수가 있어 다양한 보트를 탈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보통 발로 젓는 오리 보트를 탈 만한데 이 두 여학생은 '겉도 없이' 노 젓는 배를 타고 있다.



**동인천 광장의 인파 (65년도 영화여중 앨범)**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인천 광장에 행인과 차량으로 가득하다. 동인천은 한때 시외버스 터미널 역할도 했기 때문에 버스와 합승 차량이 많이 정차돼 있다. 1955년에 생산된 시발택시 형태의 지프차도 줄지어 있다. '미풍' 네온간판 맞은편에는 '미원' 불빛이 들어왔다.





1 실업계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들에게 미용강좌는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이다. 학생에서 숙녀로 변신하는 이 특강은 그 어느 수업보다 집중도가 높았다. (71년도)

2 이 언니, 분위기 평정하다. 소풍 행사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반별 장기 자랑 대회. 노래 실력은 모르겠고 선글라스 소품만은 점수 좀 얻었을 듯하다. (71년도)

3 참새들이 매점을 점령했다. 도시락은 도시락일 뿐이다. 삼립 단팥빵과 크림빵 하나 먹어줘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여고시절. (76년도)

4 '아르바이트'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세뱃돈, 용돈 등을 아껴 학교은행에 저축했다. 은행원은 주로 학생들이 맡았다. 일종의 실습이었던 셈이다. (74년도)

5 '미션스쿨' 영화학교에서 맞는 성탄절 행사는 남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배,

합창, 촌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6년도)

6 화생방 훈련에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은 비닐봉지였다. 여학생들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도 수다를 떨며 마냥 즐거워했다. (76년도)

7 댄스를 하하라. 한때 포크 댄스가 유행했다.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풍이 불었다. 선생님과의 포크 댄스는 스텝보다 분위기 때문에 어려웠다. (78년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살던 마을

영화관광경영고가 위치하고 있는 우각로는 우리나라 개신교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학교 옆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다. 선교사들은 1893년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해 이 일대의 땅을 매입했다. 그들은 이곳을 '에즈버리 동산'이라고 불렀다.

현재 영화학교 내에는 1911년 완공된 반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영화학당 교사가 일부 남아있다. 1, 2층의 창은 오르내리창으로 주철 도르래를 달아 움직였으며 십자형 평면의 구조로 된 3층은 예배실로 사용했다. 학교 옆에는 현재 안테르센 동화책에서나 나올법한 고풍스러우면서도 양증맞은 여선교사 사택이 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마루가 깔린 복도를 따라 아래 위층에 각각 5개의 방이 있다. 서울과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여선교사들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을 겸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옆에는 남선교사합숙소(현 인천세무서)가 이웃하고 있었다.

좀 더 언덕을 오르면 현재의 인천성서침례교회가 나온다. 이 자리에는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1890년대 말 경 아펜젤러 사택을 세웠다. 이 교회 옥상에 올라서면 왜 이곳을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사방팔방 인천이 한눈에 시원스럽게 들어온다. 특히 건너편에는 선교사이자 의사로서 초대 주한 미국공사를 지낸 알렌이 1890년 둥근 타워 돔을 결들인 2층 별장을 건립했다.



1 여선교사 사택 2 영화유치원 3 알렌별장(후에 전도관 들어섬) 4 영화학당 교사



# NEWS BRIEF



## INSIDE

혼잡한 인천 차이나타운, 걷기 편해진다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신제품 출시

시티투어버스 타면 관광지 할인 혜택이 ‘가득’

서해5도 뱃삿 할인 내년부터 확대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 개발

우리 시가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 아이콘 현판식을 지난 11월 16일 답동성당에서 가졌다. 이 상징 아이콘은 역사적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스토리텔링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징을 형상화한 것이다. 문화, 관광, 홍보,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해 인천의 브랜드 및 정체성을 홍보한다.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개발된 100선 상징아이콘 중 인천감리서, 인천전환국 등 10개소는 기존 문화재 안내판을 활용해 부착했다. 이번에 현판식을 가진 답동성당 등 3개소는 벽면 부착형, 문학산성 등 3개소는 스탠드형, 청관, 붉은 벽돌 쌀 창고 등 2개소는 바닥설치형으로 하는 등 총 18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선정 장소에 현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오용호 천주교 인천교구 사무처장, 정귀호 주임신부, 신도, 박문유치원생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문의 시 문화재과 ☎440-4473

**혼잡한 인천 차이나타운, 걷기 편해진다** 하루 3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혼잡한 차이나타운이 보행자 중심 거리로 변모한다. 차이나타운은 지난 1일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에 당선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 시는 시비 7억 원을 보태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보행도로를 개선한다. 차량 제한속도가 30km인 ‘생활도로구역’을 신설하고 일방통행 도로와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하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시 도로과 ☎440-3782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신제품 출시** 우리 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난 11월 23일 쉐라톤 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신제품 출시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신제품 출시회는 ‘어울’ 전속모델인 배우 경수진 씨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사, 국내외 바이어 등 각계각층의 축하와 함께 신제품 체험,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어울’은 지난 4월부터 내년을 겨냥해 개발한 톤업 크림, 아이에센스, 유아용품 세트 등 20개 품목을 선보였다. 국내외 바이어 특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어울’은



동남아 우수 인터넷 쇼핑업체인 ‘Qoo10’과 온라인 판매 MOU도 체결했다.

문의 시 산업장산업과 ☎440-3273

**AI 인천상륙을 막아라... 방역대책상황실 가동** 우리 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강화군 풍물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지의 AI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했다. 또 소규모 농가, 도계장, 철새 출현지역에서는 공동방제 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과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시 농축산유통과 ☎440-4394

**시티투어버스 타면 관광지 할인 혜택이 ‘가득’** 인천시티투어버스가 정거장 주변 관광지 업체와 제휴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인천관광공사는 숙박·레저·쇼핑·문화 분야 18개 업체와 제휴, 할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할인 서비스로는 월미유람선 3천 원 할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카페 일부 식음료 20% 할인, 차이나타운 제휴식당 10% 할인, 송도센트럴파크 선셋카페 10% 할인 등이 있다.

문의 인천관광공사 ☎899-7411

**인천 섬 대표음식은... 상합죽·소라비빔밥·해산물찜밥** 우리 시는 지난 11월 14일 시청 중앙홀에서 ‘I(Island) 푸드 메뉴 개



발 품평회’를 열고 인천 섬 대표 음식 3개를 선정했다. 품평회에서는 강화군 석모도·불음도 대표 음식으로 상합죽이, 오진군 장봉도에서는 소라비빔밥이, 신도·시도·모도 대표 음식으로는 해산물찜밥이 선정됐다. 시는 각 섬의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12개 종류의 음식을 품평회에 내놓고 전문평가단 10명, 시민평가단 100명의 시식 평가를 토대로 대표 음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대표 음식 요리는 해당 섬의 일반음식점에 전수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440-2764

**서해5도 뱃삿 할인 내년부터 확대** 우리 시는 서해5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뱃삿을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인천 섬 가치 재창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민은 할인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지고, 관광객 50% 할인은 1년 내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기존의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나며, 인천시와

오진군이 절반씩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문의 시 해양도서정책과 ☎440-4993

**도심에 저어새 보호구역 지정** 국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를 보호하기 위해 인천 도심에 대규모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시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남동구 고잔동 남동 제1유수지 68만5천㎡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천70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 200~300마리가 매년 봄 송도 갯벌과 남동유수지 일대에서 알을 낳는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주도해 특별히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을 세우고 불법포획 및 학대가 일절 금지된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440-3532





# NEWS BRIEF

## INSIDE

인천대공원, 전국 누리꾼이 뽑은 '아름다운 숲'

인천 명장의 전당, 시청역에 조성 22명 현액

인천종합어시장,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인천 '금융현장체험단' 출범



**인천대공원, 전국 누리꾼이 뽑은 '아름다운 숲'** 인천대공원이 '2016년 전국 아름다운 숲 선정 대회'에서 누리상을 받았다. 인천대공원은 편백나무·잣나무·소나무·전나무숲과 향나무·메타세쿼이아길 등 총 2.1km의 숲길을 갖추고 있다. '전국 아름다운 숲 선정 대회'는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유한킴벌리가 함께 주관하며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전국 숲 68곳이 참여했으며,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실사,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결정했다.

문의 인천대공원사업소 ☎440-5811

**인천 명장의 전당, 시청역에 조성 22명 현액** 인천시 '명장의 전당'이 지난 11월 11일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중앙홀에 마련됐다. 명장의 전당에는 박병일 자동차 명장, 안창현 제과 명장 등 인천 출신 명장 22명의 얼굴과 이름, 직종이 동판으로 제작돼 설치됐다. 이들은 198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명장'으로 뽑은 기술 장인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전국에서 매년 20여 명만 선발될 정도로 최고의 기술 장



인만 가질 수 있는 영예다. 시는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 장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명장의 전당을 추진해 왔다.

문의 시 일자리정책과 ☎440-4242

**인천종합어시장,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 추진** 연안부두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인천종합어시장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



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어시장 상인회, 인천발전연구원, 중구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종합어시장 이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난 11월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현재 어시장을 약 1km 바다 쪽으로 옮겨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인천발전연구원 용역 결과 11개 후보지 중 최적지로 꼽혔으며, 상인 설문조사에서도 93.5%가 이전에 찬성했다.

문의 시 경제정책과 ☎440-4223

**미래세대를 위한 인천 '금융현장체험단' 출범** 우리 시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과 현장중심체험교육을 위해 금융감독원, 인천시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지난 11월 7일 '금융현장체험단'을 출범했다.

'금융현장체험단'은 '1사1교 금융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인천지역 중·고등학생들은 교실 안의 금융 소양교육을 벗어나 은행·카드·증권·보험사를 직접 방문, 금융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 시 교육지원담당관 ☎440-2165

## IMAGE NEWS





# COUNCIL NEWS

## INSIDE

인천시의회 대표단, 中 웨이하이시 인민대표대회·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방문

의정아카데미 ‘시민 의정교실’ 운영



**인천시의회 대표단, ‘中 웨이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방문**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웨이하이시 인천관(IFEZ) 개관식에 초청된 인천시의회 대표단이 인천관 운영 협조 당부 및 양 도시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10월 31일 중국 웨이하이시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했다. 인천시의회회의 이번 방문은 駐中(주중) 인천관 개관식 참석뿐 아니라, 2015년 체결된 한·중 FTA에 의해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양국 최초로 지방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양 도시의 경제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민들의 왕래와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한 웨이하이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인천(IFEZ)관은 1천 448㎡ 규모로 駐中 인천(IFEZ)의 경제무역 대표처 기능을 맡게 되며, 인천과 IFEZ를 알리는 홍보관, 상설·기획·온라인 전시가 가능한 전시관, 영상회의와 수출·투자 상담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회의실, 행정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의회 대표단,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방문** 제갈원영 의장 등 9명의 시의원들이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자매도시

인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회의 초청으로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했다. 시의회회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의회의 상호 친선과 국제 교류를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시의회 대표단은 이와 함께 주 몽골 한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눴다. 제갈원영 의장은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산두이(Sandui.TS)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몽골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며 “향후 양 도시의 기업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울란바타르시는 지난 2011년 자매우호도시 협정



을 체결하고, 매년 양 도시의 의회 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의정아카데미 ‘시민 의정교실’ 운영**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학생 45명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의정아카데미 시민 의정교실에 참가했다. 이날 학생들은 제갈원영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의정 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오늘 의정교실 참여를 계기로 행정에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시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각자의 꿈을 이뤄 우리 사회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돼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시의회는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 의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 운영**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7일 강화군 소재 송해초등학교에서 전교생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을 열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정교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에 직접 방문, 의회를 소개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의회소개 강의와 홍보영상 시청, 모의의회 본회의 실연, 수료식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는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만화책 비치 조례안 등 2건을 상정, 학생들 입장에서 열린 찬반토론 후 표결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시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화군 문화재 현지 시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강화군을 방문해 문화재 보전실태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황흥구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영하 날씨 속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군의 대표 문화재인 고려궁지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의 관리현황 및 보존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특히, 이날 강화고려역사재단 김락기 사무국장은 “최근 연구에서 현 고려궁지는 고려궁지 중 일부

에 불과하고, 임금이 집무를 보고나 거주하던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실제 고려왕실과 고려조정이 위치했던 장소를 찾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해, 고려궁지에 관한 역사학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관·교육연수원 등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21일과 22일 해밀학교, 한누리학교, 산마을고 등 3개의 대안학

교와 평생학습관, 교육연수원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교육현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11월 21일 해밀학교와 한누리학교 방문에서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길 주문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산마을고 방문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통해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인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위원회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 ※‘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440-6135~8  
홈페이지 [www.icouncil.go.kr](http://www.icouncil.go.kr)





# “나도 300만 인천인”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요즘, 인구 300만 시대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도시의 외형적인 증가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혁신과제들을 준비해 온 우리 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올해 태어난 아기들을 축하하며 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다.

정리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아가 : 전하운  
성별 : 여  
생일 : 1월 15일  
부모 : 아빠 전병준, 엄마 안미라

결혼 10년 차, 10살 아들, 5살 아들을 키우며 올해 셋째를 품에 안은 다둥이 가족입니다. 셋째를 낳으면서 300만 인천에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예요. 가정폭력, 어린이집 폭력 뉴스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이가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세요.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 : 김민선  
성별 : 남  
생일 : 7월 4일  
부모 : 아빠 김요영, 엄마 오자은

300만 인천의 육아복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 키우며 집안일에 회사 일까지 병행하기가 쉽지 않네요. 시간제 보육, 종일반 등 보육정책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실질적인 육아복지가 추진됐으면 합니다.



아가 : 김하울, 김서울  
성별 : 남, 여 (쌍둥이)  
생일 : 8월 18일  
부모 : 아빠 김성관, 엄마 강혜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외벌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천시의 출산장려 정책 및 보육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아가 : 이우성  
성별 : 남  
생일 : 10월 14일  
부모 : 아빠 이명병, 엄마 김인나

300만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기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안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부모가 편안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가 : 강서하  
성별 : 여  
생일 : 7월 11일  
부모 : 아빠 강영길, 엄마 김선녀

인천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도시가 되었다니 기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인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올해 보물 같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아가 : 조해리  
성별 : 여  
생일 : 5월 15일  
부모 : 아빠 조상곤, 엄마 류미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걱정 없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세요.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과 보육 관련 지원이 늘어나 부모들이 고민 없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인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 : 유다원, 유다은  
성별 : 남, 여 (쌍둥이)  
생일 : 8월 10일  
부모 : 아빠 유희상, 엄마 신인옥

부모님과 저, 남편까지 모두 인천 토박이입니다. 인천시가 항상 깨끗한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월미도, 차이나 타운, 동화마을 등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가면 공사 중인 곳이 너무 많고 쓰레기도 많아서 친구들을 초청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천이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아가 : 정서진  
성별 : 남  
생일 : 5월 7일  
부모 : 아빠 정진규, 엄마 문혜영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면 합니다. 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보육정책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 주세요.



아가 : 박예성  
성별 : 남  
생일 : 8월 8일  
부모 : 아빠 박찬수, 엄마 박소라

인천시 인구 300만 돌파를 축하합니다! 인천이 제 고향이라 제겐 더욱 뜻깊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성범죄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불미스러운 일보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훈훈한 기사를 인천에서 많이 접하길 기대합니다. 또 인천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많아져 인구 300만을 넘어 400만까지도 바라보는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 김문경  
성별 : 남  
생일 : 8월 14일  
부모 : 아빠 김동현, 엄마 김연희

아이를 낳으니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와 유아용품 등을 지원해 주세요. 또 워킹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인천시가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각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

인천시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출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주력한다. 먼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17년에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을 올해 316개소에서 2020년 635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공보육 분담률을 38.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구입방법**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 지역 소방관서

서부소방서 ☎723-5420, 부평소방서 ☎723-5305, 남동소방서 ☎870-5215, 공단소방서 ☎723-5519, 중부소방서 ☎870-5110, 계양소방서 ☎650-5611, 남부소방서 ☎870-3214



### 학산생활문화센터 공연 및 프로그램 안내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은 시민들이 창작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시민 문화예술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12월 공연 및 프로그램을 알려 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시	대상	장소
[학산가족음악회] Adieu2016	12월 28일(수) 오후 7시	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문화예술체험]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문화예술놀이체험 '학산마실'	12월 3(토), 17(토) 오후 4시	남구주민, 7세이상 아이와 부모	학산생활문화센터 북카페
[즉흥연극] 나의 이야기 극장	12월 18일(일) 오후 4시	12세 이상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즉흥연극] 마당예술강사 양성 특강	12월 13일(화) 오후 4시	12세 이상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관람료 무료),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수강 안내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cyber.incheon.kr)가 외국어, 자격증, 소양·취미 등 총136개 과정의 무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교육과정

- 외국어 : 영어(TOEIC), 중국어(HSK), 일본어(JPT) 등 15개 외국어
- 자격증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14개 자격시험 대비
- 소양·취미 : 인천의 역사, 포토샵, MS-Office 등 107개 과정

**수강료** 무료(인천시민이 아니어도 무료 수강)

**학습방법** 누구나 회원가입 후 365일 언제나 무료 수강신청 및 학습

- 청소년 자원봉사 과정 수료 시 자원봉사활동 1시간 인정
- 수료자(진도율 60% 이상) 모바일문화상품권 경품이벤트 실시

**문의**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440-7674~5

### 스케이트 타러 GO~GO~

동구는 신나는 겨울을 위한 화도진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다음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16년 12월 9일~2017년 2월 5일  
※개장일 : 2016년 12월 9일(오후 7시~9시 30분) 무료입장

**장소** 동인천역 북광장(1호선 동인천역 광장)  
**시간** 오전 10시~ 오후10시(금,토,일은 오후 11시까지)

**이용료** 1천 원/시간(장비대여료)

**문의** ☎070-4035-3053



#### <강습안내>

##### ■ 학교단체 강습

- 기간 : 2016년 12월 9~23일
- 이용료 : 3천 원 / 2시간/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 ■ 주말강습

- 기간 : 2016년 12월 26일~2017년 1월 8일(오전 9~10시)
- 이용료 : 1만 원 / 1주
- 정원 : 15명, 2개반

##### ■ 주중강습

- 기간 : 2017년 1월 9~22일(4회 / 주, 4타임 / 일)
- 이용료 : 2만 원 / 1주
- 정원 : 15명, 2개반

### 여성의광장 교육수강생 모집

여성의광장은 2017년 제1기 여성의광장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문화 건강 교양교육, 토요강좌, 단기교육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wp.incheon.go.kr)

#### 신청기간

·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 12월 12일(월) 오전 9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문화건강교양교육, 토요강좌, 단기교육 : 12월 13일(화) 오전 9시~

**교육기간** 2017년 1월 2일(월)~3월 25일(토)

**교육대상** 만18세 이상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

(필라테스, 재즈&방송댄스, 태보&다이어트댄스, 벨리댄스를 제외한 전과목 20% 범위내에서 남성도 모집)

####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wp.incheon.go.kr)

※ 컴퓨터기초와 활용반은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가능

**문의** 여성의광장 ☎815-7101~3







##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안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상을 바꾸는 노력, ‘정치후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후원금 :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 온라인 정치후원금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www.give.go.kr



### 해양친수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우리는 해안 지역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해양친수도시조성’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천시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대학생 포함)

**모집인원** 50명

**접수방법** e-mail, 방문, 우편, 팩스 (인천발전연구원,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waterfront.idi.re.kr)에 접속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참여하기(신청하기) → 등록

**접수기간** ~12월 22일까지

**선정방법** 신청자 중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거주지, 전문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결과발표** 2017년 1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역할 : 인천시 해양주권 확보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해변의 현안과 장기발전구상의 주요정책과 계획내용에 대한 비전 및 목표, 핵심이슈 및 추진전략 설정
- 회의개최 : 총 3회(의견전달식 포함) 주말 4시간 범위내에서 시행(필요 시 조정 가능)
- 운영기간 : 2017년 2월 중(약 1개월)

문의 인천발전연구원 ☎260-2771, 인천시 도시계획과 ☎440-4648



### 희망2017 나눔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지회는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모금기간** ~2017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계좌번호**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지회)

▶ 농협 147-01-182301 ▶ 신한 100-013-448757  
448757 ▶ 국민 208-01-0505-298

**기부상담** 032-456-3333,

ARS기부: 060-700-1210(3천 원)



강화 고려궁지 승평문 전경

### 학술회의 ‘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와 고고 유적’ 개최

시립박물관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주관으로 학술회의 ‘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와 고고 유적’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12월 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후원** 한국중세고고학회

**주최·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문의 인천시립박물관 ☎440-6745



### 2016 인천세계문자 포럼

2016년 인천세계문자 포럼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송도 G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일시** 12월 9일(금)~10일(토)

**장소** 송도 G타워 (8층 국제회의장)

**주최**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민경욱

**주관** 인천관광공사, 인하대학교, 한국기호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인원** 약 120명 (국내·외 학자 및 학생, 시민)



문의 시 마이스산업과 ☎440-1505





# 굿모닝 인천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월호	
	<p>2016 새해 인사 스페셜 채드워국제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인천 스케이트장 인천은 <b>활영 중</b> 도시 재생 공간 '카페발로'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연안부두 우리는 인천 토지금고 마을 사람들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① 인천여상 편 1월의 문화 행사 포커스 국비 확보 쫓인 경인고속도로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박원형 가족치료 전문 상담사</p>
2월호	
	<p>우리는 인천 인천역 사람들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수안선 인천을 즐긴다 수안선 여행 포커스 사동팔달 철도망 인천의 맛 겨울이 달콤한 간식 열전 인천은 <b>활영 중</b> 송도국제도시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동산고등학교 편 2월의 문화 행사 인천을 보다 자상 갤러리 박물관 이야기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NEWS BRIEF IMAGE NEWS COUNCIL NEWS INFO BOX 우리 집 앨범 사진사 외할아버지의 가족사랑 모닝 커피 한잔 이석주 인천해광학교 교감</p>

4월호	
	<p>화보 2016 봄을 봄 우리는 인천 인천유나이티드FC 전통시장에서 찾은 봄 봄나물 이야기 봄나물 요리 인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봄날 산책 신포동 갤러리 탐방 영종도 화보 촬영 현장 인천공항철도 여행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식목 행사 박물관 이야기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유물로 보는 박물관 70년 시립박물관 근처 나들이 4월의 문화 행사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기계공고 편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모닝 커피 한잔 정상희 아도크리에이션 대표</p>
5월호	
	<p>도심에서 즐기는 소풍 청라호수공원 봄나들이 인천 서북부 지역 '햇'플레이스 우리는 인천 인천대공원 사람들 쫓인 아오란그룹 방인 그 후 중화권을 만나다 대만 가오슝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수봉공원 가족이 행복한 즐거움 일터 가족친화인증기업 5월의 문화 행사 가정의 달 공연 박물관 이야기 수장고 속 유물, 인천 역사를 열다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중앙여성 편 NEWS BRIEF COUNCIL NEWS 축제 INFO BOX 인천 사는 이야기 모닝 커피 한잔 임종우 생생지락예술창작소 대표</p>

6월호	
	<p>나무 예찬 플라타너스 보호수 6월 보훈의 달 클롬비아군 참전비 우리는 인천 시도 염전 사람들 스포츠 인천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야구 여름밤 즐기기 반딧불이 포커스 한중지사상장회의 NEWS BRIEF IMAGE NEWS COUNCIL NEWS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대건고 편 6월의 문화 행사 박물관 이야기 교유섭 유품 전시 INFO BOX 인천 사는 이야기 모닝 커피 한잔 김민재 웹툰 작가</p>
7월호	
	<p>여름 특집 세 가지 테마, 인천 섬 걷고 싶은 섬, 소무의도 쉬고 싶은 섬, 소야도 놀고 싶은 섬, 시도·모도 팔미도 영화 '인천상륙작전' 개봉 섬 둘러보기 인천도시철도 2호선 미리 타보는 경전철 인천을 즐긴다 도시철도 2호선 여행 새로운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두근두근 인천여행 시내버스 타고 바다로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해광학교 편 7월의 문화 행사 NEWS BRIEF COUNCIL NEWS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현황 모닝 커피 한잔 인천 녹색연합 '파랑'기자</p>
8월호	
	<p>별이 있는 풍경 여름밤 별자리 즐기기 가족천체관측교실 우리는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사람들 포커스 인천주권 시대 시민행복 더하기 재정건전화 도심에서 여름나기 여름 핫스팟 자연에서 여름나기 강화도 이색 캠핑장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재능고 편 여름 축제 펜타포트락페스티벌&amp;송도세계문화축제 8월의 문화 행사 박물관 이야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NEWS BRIEF IMAGE NEWS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COUNCIL NEWS INFO BOX 인천 사는 이야기 모닝 커피 한잔 문화상점 재미난상회 대표</p>

9월호	
	<p>화보 인천향교 우리는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사람들 인천의 에너지 야구, 축구 대통령배 전국 우승 인천 가치 재창조 돈대 애인페스티벌 인천주권 시대 인천 교통 리뷰 용현동 낙섬 박물관 이야기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9월의 문화 행사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박문여고 편 NEWS BRIEF IMAGE NEWS 인천상륙작전 명소 COUNCIL NEWS 인천 사는 이야기 가족여행 INFO BOX 모닝 커피 한잔 남달우 (사)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p>
10월호	
	<p>드론, 날다 ① 하늘 아래 인천 ② 드론 메카 인천 ③ 드론 아지트 현실로 다가온 미래도시 송도국제도시 우리는 인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사람들 인천주권 시대 ② 해양 주권 경기장 변신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시립박물관 전시회 뒷이야기 10월의 문화 행사 10월 축제 애인 페스티벌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송도고 편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BOOK 모닝 커피 한잔 고현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홍보서포터</p>

11월호	
	<p>우리는 인천 인천지방경찰청 기마경찰대 300만 인천 행복 도시 건설 인구변화로 본 인천 인천주권 시대 늦가을 풍경 강화 두두미 마을 꽃마니에프락 인천바다 선광호 이야기 인천의 맛 명품 새우젓 박물관이야기 보존과학 11월의 문화 행사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동인천고 편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독자 앨범 인천 사는 이야기 모닝 커피 한잔 정치오 (사)관광산업연구원장</p>



# 한 마리 새조차 제 보금자리를 사랑합니다

글 이영미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최근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폭행한 사건이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라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마음이 왜곡된 가장의 희생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또한 폭력 가정에 노출되어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른 희생자인 셈입니다. 이들 또한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응어리진 분노와 한을 풀어낸다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괴롭히면서 군림하는 악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4년 22만 7천608건, 2015년 22만 7천 727건으로 하루 평균 600건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총 피해의 10% 미만으로 집계되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 허버트 조지 웰스(1866-1946)

영국의 소설가 H.G. 웰스의 명언이다. 웰스는 처칠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며 타임머신, 마술가게, 우주 전쟁 등 수많은 소설을 남겼다. 웰스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이면서도 인권을 중시한 사상가다. 그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에서도 인권이 지켜지고, 가정이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임을 깨닫게 하고자 이 같은 명언을 남겼다.

서와 연계된 상담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화해를 했으며 상담을 거부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며 아예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상당 기간 직접 폭력에 노출된 경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강력 범죄의 가해자나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은 폭력 가정에서 자라나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슴에 품고 성인으로 자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분노와 증오를 풀어버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내 곁에 가족이 있어야, 사회라는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도 사람들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도 제 보금자리를 사랑한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가족을 보듬고 안아 주어야 합니다.



## 제발, 스톱

미끄덩, 파당.  
곳곳이 빙판이다.  
모든 것이 미끄러져 나뒹굴고 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제설함 열고 염화칼슘(소금)을 구석구석 뿌리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丙申年)’은 어여 가라.

—남구 도화동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